



길림성 각계 2025년 음력설 합동세배회 장춘서

황강 축사 호옥정 사회 주국현 참석

1월 23일, 성당위와 성정부는 장춘에서 2025년 음력설 합동세배회를 가졌다. 전 성 각계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하고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황강이 합동세배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합동세배회를 사회했다. 성정협 주석 주국현이 참석했다.

황강은 우선 성당위,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을 대표하여 전 성 여러 민족 인민들과 전 성 리 퇴직 로동자들, 길림의 진흥과 발전을 관심하고 지지하는 각계 벗들에게 진심어린 문안과 아름다운 축복을 보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함께 비바람을 겪고 함께 해빛과 무지개를 맞이하면서 극히 평범하지 않은, 감개무량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을 보냈다. 전 성 상하가 새 중국 창건 75년을 경축하고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과 길림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지시 정신을 거듭 학습하고 거듭 맞추어보고 거듭 실천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제반 분야의 사업에서 착실

한 성과를 거두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림성이 이룩한 진보와 성과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와 친절한 배려를 떠날 수 없으며 수천수만의 로동자, 건설자, 창업자들의 부지런한 노력을 떠날 수 없다. 전면 진흥의 분투의 길에서 드높은 책임감을 가진 모든 길림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공헌을 했는바 모두 크게 칭찬할 만하다. 영광은 길림인민들에게 속한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동경과 도전을 가득찬 새로운 한해에는 반드시 충성심, 분투의지, 단결의 힘, 분투의 열매로 사회주의 현대화 새로운 길림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참신한 장을 써나가는 것이다. '두가지 확립'을 충성스럽게 옹호하고 '두가지 지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것을 반드시 련마해야 할 '정치품격'으로 삼아야 한다. '재자 위풍을 떨치고 좋은 성적을 이룩하자'는 당부를 명기하고 착실하고 실속있게 일하여 길림의 고품질 발전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진하며 실제 행동으로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증명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는 것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태만하지 않는 '철칙'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 리념이라는 '지휘봉', '신호등'을 견지하며 소비를 진

작시키고 투자를 확대하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질적인 효과성 제고와 량적인 합리적인 성장을 고품질 발전의 전반 과정에 통일시켜야 한다. 전 성 각자, 각 업종은 모두 고품질 발전의 진실한 성적을 비겨야 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고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난관을 돌파하는 '관건적인 한수'로 삼고 중점 개혁 임무를 면밀히 주시하여 못을 박는 정신으로 끝까지 틀어쥐어야 한다. 최전방 의식을 증강하고 변역(沿边) 근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국제시장을 깊이 파고 해양경제강성 건설에 힘써 '일대일로'의 북쪽으로의 개방 창구가 개방할수록 커지도록 함으로써 길림성의 더욱 많은 친환경 경량 제품이 국문을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력사적 자각을 증강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는 것을 분발하는 '정신원천'으로 삼고 동북항일련군 정신을 영원히 명기하고 고양하여 반석처럼 견고한 리상, 신념, 신앙을 주조해야 한다. 보호, 전승 강도를 한층 더 높여 길림 력사문화유산이 먼지를 털고 빛을 발하도록 함으로써 길림 문화사업이 더욱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안정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고수해야 하는 '최저선 임무'로 삼고 대중들이 긴박하고 어려워하고 근

심하고 바라는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손에 틀어쥐고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내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급 간부들은 '시시각각 안심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천만가구의 안녕을 잘 지키고 광범한 대중들이 따뜻하고 화목한 설명절을 보내도록 확보해야 한다.

황강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진의 길은 순풍에 돛 단 듯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고 비바람이 동반하는 것도 정상이다.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신심을 확고히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적같이 일함으로써 길림 전면 진흥의 광활한 천지와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합동세배회에서 우리 성의 문예종사자들이 다채로운 문예종목을 공연했다.

합동세배회에는 성급 현지 지도동지, 전임 성급 로동자, 주창촌 군급 부대와 무장경찰부대 부군급 이상 수장,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 비서장, 성급 각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책임자, 무소속 인사와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 대표, 재창촌 일부 20차 당대회 대표, 인대 대표, 정협 위원 및 각계인사와 관련 방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 길림일보

2024년 전국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 4만 1,314원

최근 국가통계국은 2024년 중국경제년례보고를 발표했다. 2024년 전국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1,31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명목상 5.3% 성장했으며 가격 요인을 뺀 실제 증가는 5.1%였다.

도시 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은 5만 4,1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명목상

4.6% 증가했으며 가격 요인을 뺀 실제 증가는 4.4%였다. 농촌 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3,11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명목상 6.6% 증가했으며 가격 요인을 뺀 실제 증가는 6.3%였다.

전국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중위수는 3만 4,70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명목상 5.1% 증가했다. / 인민넷

2024년 국내 출행 인수 연 56.15억명

22일, 문화관광부는 국내 관광 추계조사 통계 결과에 근거하면 2024년 국내 출행 인수가 연인수로 56.15억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4억명, 14.8% 성장했다고 전했다. 그중에서 도시 주민 국내 관광 출행자는 연인수로 43.70억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성장하고 농촌 주민 국내 관광 출행자는 연인수로 12.45억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성장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국내 관

광 출행자는 연인수로 각각 14.19억명, 13.06억명, 15.12억명, 13.78억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 11.8%, 17.2%, 13.2% 성장했다. 2024년, 국내 관광객 출행 총소비는 5.7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4조원, 17.1% 성장했다. 그중에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출행 소비가 각각, 4.93조원과 0.8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와 12.2% 성장했다. / CCTV 넷

2024년 길림성 택배업무량 처음으로 10억건 돌파

1월 22일 소집된 2025년 전 성 우정사업회의에 따르면 2024년 전 성 우정업종의 운송업무량은 12.82억건, 업무수입은 141.7억원을 완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01%와 6.12% 성장했다. 그중에서 택배업무량은 처음으로 10억건을 돌파한 10.06억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7% 성장했다. 택배업무수입은 97.89억원을 완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23% 성장했다.

2024년, 전 성 우정업종은 전년도 제반 임무를 능률적으로 완수했으며 업무 운영 태세가 지속적으로 호전되었다. 작년 한해 동안 업종은 연간 업무량 2억건 기업 1개, 1억건 기업 4개를 육성했다. 현대농업에 적극 봉사

하여 업무량 6,788.27만건을 완수하고 수입 3.45억원을 실현했으며 봉사생산액은 30억원을 초과했다. 사업방안 출범, 설비 갱신 추진 행동에 배합하여 업종에서 장비 1,556대(세트)를 갱신했는데 자금 투입 2.76억원을 이끌었다. 2024년 11월, 우리 성은 처음으로 '단월 택배업무량 1억건 성급' 대렬에 들어섰다.

농촌 우송물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년간 도합 1,115개의 표준화 촌급 우송물류종합봉사소를 건설하고 76개의 려객운수, 화물운수, 우정택배 협력 로선을 개통하여 루계로 1,747.94만건의 속달우편물을 운송했다. / 유경봉기자

2024년 연길통상구 출입국수 연 76.4만명

2024년 연길출입국변방검문소는 연 76.4만명의 출입국과 5,100여회의 국제항공편 리착륙을 보장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3%와 55.8% 증가한 셈이다.

출입국인원중에서 외국인인 연 34.8만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인 연 2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우리 나라의 무비자 범위 확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길출입국변방검문소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출입국인원과 교통편의 순조로운 입국과 통행에 위해 검사 절차를 최적화하고 통관 봉사 조치를 혁신하며 근무 경찰력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골간경찰을 통상구에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여러 언어로 장소 안내와 정책 해설 등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인 통관 봉사를 제공했다. / 유경봉기자



장춘역, 복자와 춘련 선물하며 려객들에게 새봄의 축원을

1월 21일, 장춘역과 장춘시문화관광국은 련합으로 '길림에서 음력설을 쇠고 봄을 맞아 복을 선물하기' 행사를 전개했다. 서법에 호가들은 현장에서 붓을 날려 복자를 쓰고 춘련을 선물하면서 려객들에게 아름다운 새봄의 축원을 보냈다. / 길림일보

빠른 뉴스 빠른 뉴스

항상 믿고 보는 길림신문입니다

扫描二维码关注
《朝闻今日》微信公众号

点击公众号页面下方的
'서비스'
'再点击'신문 주문'

进入中国邮政-微商城
按照商城提示购买订阅
《吉林朝鲜文报》

刊名: 吉林朝鲜文报
刊号: CN22-0030
邮发代号: 11-13
订阅地点: 当地邮政局(所)
订阅咨询: 权勇
(15304312665)

吉林朝鲜文报
全年定价
180元

未收到报纸或
投递服务态度不好
请拨打邮政投诉电话
11185转人工台